

중세의 은행 IBK, '비 올 때 우산 펼 수 있나' 시험대에

내수 침체 장기화로 기업리스크 ↑
원리금 1개월 이상 연체 기업 증가
기업銀 중기대출 점유율 22.6%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감소와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업 대출의 리스크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고객 비중이 높은 IBK기업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대출과 대출만기 연장·금리우대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와 은행의 대출부실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IBK기업은행 서울 을지로 본점. /기업은행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원리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기업 연체율은 0.51%로 전달 대비 0.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은 0.38%로 전달 대비 0.13%포인트 줄었지만, 중소기업은 0.54%로 전달 대비 0.09%포인트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경기변동에 따라 부실확대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점유율이 22.6%에 달하는 데다 대출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162조7000억원(7.3%)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기업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상태다. 대손충당금은 앞으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대손 비용을 먼저 쌓는 예비비로 부실채권(고정하여여신비율)이 늘어난 만큼 적립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업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89.1%로 시중은행의 평균치

가 120.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적립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다.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리스크가 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야 하지만, 대출만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코로나19가 끝나고 이후 기업들의 회복이 더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확산하면서 항공, 운수, 서비스업, 제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속된 이후에도 기업의 회복이 더디면 부실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 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하되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유심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주가 방어 나선 정의선, 자사주 817억 매수

〈현대차 수석부회장〉

차 58만1333주, 모비스 30만3759주
현대차 지분, 0.27%p 늘어난 2.62%
"불안정한 시장, 책임경영 의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최근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주식을 쓸 어담았다.

26일 공시에 따르면 정 수석부회장은 19일부터 25일까지 5거래일간 현대차 주식 405억7000만원, 현대모비스 주식 411억원어치를 장내 매수했다.

총 817억원 규모에 달한다. 현대차는 58만1333주, 현대모비스는 30만3759주에 해당한다. 평균매입단가는 각각 6만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9793원, 13만5294원이다. 주식 매입 자금은 배당 소득 등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 수석 부회장의 현대차 지분은 0.27% 포인트 늘어난 2.62%가 됐다. 지주사인 현대모비스 지분도 전혀 없었다가 0.32%로 확대했다.

현대차는 정 수석 부회장이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 책임경영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현대차 이사회 의장에 선임되는 등 후계 구도를 본격화하고 있던 상황, 일각에서는 지배 구조 개편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단, 현대차는 정 수석 부회장의 주식 매입이 지배구조와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재용 기자 juk@

호반그룹 협력사에 20억 경영안정지원금

건설·산업 협력사 200여곳 중
대구·경북 지역 우선 선정 지원

호반그룹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협력사에 20억원을 지원한다.

호반그룹은 2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호반파크 2관에서 협력사 현호건설 심용길 대표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 지원금(이하 경영안정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안정 지원금은 호반그룹의 호반건설, 호반산업 협력사 200여개에 총 2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경영안정 지원금은 대구·경북의 협력사를 우선 선정해 각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공사 진행 현장의 협력사들은 각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경영안정 지원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상생협력 기금을 활용해 오는 4월 초에 지급한다. 건설업계에서는 코로나19 관련으로 협력사에 경영안정 지원금을 전달하는 첫 사례다.



호반그룹 협력사 현호건설 심용길 대표는 "많은 기업인들이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했다"며 "모든 분야에서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황임에도 협력사를 위해 경영안정 지원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사진)은 친서를 통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낸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경영안정 지원금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호반그룹은 이달 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0억 상당을 지원했다.

/정연우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국민연금, 조원태에 '한표' 오늘 주총 표대결서 유리

사내이사 선임 안건서 '찬성'

국민연금이 한진(家) 장남인 조원태한진그룹 회장(사진)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진영의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은 한진 같은 지분 2.9%를 보유 중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의 안건 중 조원태 회장과 하은용, 김신배 후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위원은 조원태 후보와 김신배 후보 선임에 이견을 제시했다.

배경태 후보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하기로 했다. /김희주 기자 hj89@

마포구 대장주 아파트 한달새 4000만원 '뚝'

마·용·성 아파트매매 포함세
마포래미안, 이달 13억에 거래
상암월드컵파크, 전월비 2500만 ↓



서울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포함세를 나타내고 있다. 마포구 성산 시영아파트 전경. /정연우 기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선두주자였던 서울 마포일대 집값도 주춤하고 있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포함세를 나타냈다. 강북 주요 인기 지역인 마·용·성은 마포(0.04%→0.03%)·용산(0.02%→0.01%)·성동(0.02%→0.00%) 순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제자리를 유지했다. 현재 마포구 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는 3141만원, 전세는 1676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마포구 대장주 아파트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59.95㎡)는 이번달 13억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3억4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2월 8억9000만원에 팔린 '상암월드컵파크 9단지'(전용면적 84.98㎡)는 3월에 8억6500만원에 거래됐다. 두 아파트 모두 1개월 동안 2500만~4000만원 떨어졌다.

'래미안공덕4차'(전용면적 59.9㎡)는 10억2000만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지

난달 11억4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반면 호가가 오른 일부 매물들도 눈에 띈다. 싸게는 팔지 않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급매가 나온 주요 아파트를 살펴보면 래미안1차(전용면적 84.9㎡)는 호가가 13억원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달 12억원에 거래됐다. 마포자이(전용면적 84.69㎡)는 지난 1월 14억2800만원에 팔린 후 이번달 15억4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성산시영아파트(전용면적 59.43㎡)는 9억1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 1월 8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성산시영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D등급(조건부재건축)을 받았다. 2018년 재건축을 추진한 이후 2년 만이다. /정연우 기자 yw1964@

가업승계 전과정 지원 'TAX컨설팅센터'

우리은행, 교육·세미나도 제공

우리은행이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제휴하고, 개인 및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가업승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업상속공제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10년간 지분, 고용, 업종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기업인들이 신청을 기피했다.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돼 고용 및 업종, 자산처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가업승계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PB고객부 내



우리은행이 가업승계 TAX컨설팅센터를 오픈했다. /우리은행

'가업승계TAX컨설팅센터'를 운영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업승계 계획수립부터 실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차세대 기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세미나도 제공할 계획이다. 단, 컨설팅을 제외한 세무신고 및 유언장 작성 등은 제휴업체와 별도 계약을 통하여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